

중국 조선족

아동문학작가작품론

연변주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 편찬

연변인민출판사

중추조선족 아동문학작가작품론

연변주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 편찬

주 필: 김만석 부주필: 림 철

편집위원: 전성호, 김응룡, 김철호, 권해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김천사

표 지: 최 강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国朝鲜族儿童文学作家作品论/ 金万石 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6

ISBN 978-7-80698-954-8

I. 中 . . . II. 金 . . . III. 朝鲜族—儿童文学—文学研究—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84224号

中国朝鲜族儿童文学作家作品论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7 字数: 4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80698-954-8 (民文)

版次: 2007年 6月 第 1 版 2007年 6月 第 1 次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4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은 1927년 채택룡의 동요 《어린 동생》의 창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김례삼, 윤동주, 최형동, 윤정석, 리행복 등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81명이나 되는 아동문학작가들이 선후하여 아동문학문단에 데뷔하여 동요, 동시, 동화, 우화, 아동소설, 동극에 걸쳐 우리의 개성적인 아동문학을 아름답게 장식하여왔다.

그런데 아동문학 평론과 연구는 1950년대 최형동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1982년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여 김진석, 김만석, 허봉남, 정몽호, 리광순, 허범, 김룡길, 전성호, 김응룡, 김룡운 등이 우리의 아동문학작품과 작가들에 대하여 론평하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제3대평론가 림철이 석사논문 《아동문학작가 채택룡연구》를 발표하면서부터 우리의 아동문학리론대오는 로중청이 결합된 진영으로 되었다.

오늘 우리 연변주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는 《중국조선족 아동문학작가작품론》을 편집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편집부는 주필에 김만석, 부주필에 림철, 편집위원에 전성호, 김응룡, 김철호, 권해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집필에 참가한이들로는 김만석, 림철, 전성호, 김응룡, 김득만, 최문섭, 한석운, 전복록, 최삼룡 등 9명이고 그들이 취급한 작가들로는 채택룡, 김례삼, 윤동주, 최형동, 윤정석, 리행복, 류원무, 김득만, 김만석, 최문섭, 한석운, 허범, 전복록, 김룡길, 허봉남, 김영금, 전춘식, 김철호, 김영, 김현순, 홍용암 등 21명이나 된다.

이번 작가작품론은 우리의 아동문학 제1대와 제2대 작가들에 대하여서는 작가론으로 취급하고 기타 작가들은 작품론으로 포섭하기로 하였다.

아동문학 작가와 작품연구에서 우리는 연구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구정신을 고양하며 백가쟁명, 백화만발의 원칙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평론과 논문을 부동한 방법론으로 쓸것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론으로 쓰든지간에 질을 첫자리에 놓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시 말하면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실사구시적인 평가를 내리는것이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책임지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 않고 외국의 이론을 끌어들여다가 억지로 뜯어맞추고 허장성세하면서 상업주의와 실용주의 경향으로 나가는 현상을 배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시각으로 우리의 아동문학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고 자기나름대로 자기의 론단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작자자신의 자유이

며 또한 작자본신이 책임질바로 력사에 남을것이다.

하지만 연구가들마다 력사에 책임지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려고 애를 썼으나 작자들의 이러저러한 원인과 편집자들의 수준제한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일면적인 것, 지어는 오유적인 견해들이 나타났을줄로 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편집하고 출판한 《중국조선족아동문학작가작품론》이 금후 중국조선족아동문학연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바이다.

끝으로 이번 《중국조선족아동문학작가작품론》출판에 경제적후원을 전담한 재한방원주식회사(在韓方圓株式會社) 심해군(沈海軍)대표리사에게 우리 편집위원회와 중국조선족아동문학작가들 전체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올리는 바이다.

《중국조선족아동문학작가작품론》편집위원회

주필 김만석

2006년 11월 23일

차 례

작가론

1. 채택룡아동문학활동과 그 문학사적의의/3..... 김만석
2. 채택룡아동문학연구/20..... 림 철
3. 윤동주동시와 그 문학사적의의/45..... 김만석
4. 김례삼론/67..... 전성호
5. 최형동과 그의 아동문학/82..... 김득만
6. 아동문학작가 윤정석론/91..... 한석윤
7. 리행복과 그의 작품세계/113..... 최문섭
8. 동요동시인 김득만론/136..... 김만석
9. 꿀벌처럼 부지런히 동심을 파헤친 시인/166..... 전성호
10. 아동문학작가, 리론가 김만석론/199..... 김응룡
11. 다양한 착상의 동시세계/222..... 전성호
12. 중국조선족동시창작의 새 지평을 연 동시인/242... 림 철
13. 아동문학작가 허봉남론/260..... 김응룡
14. 김영금아동문학의 특징/277..... 최삼룡
15. 동화작가 전복록론/287..... 림 철

작품론

1. 장편소설 《장백의 소년》이 거둔 성과와 기타/299.....김선과
2. 동화창작에서의 새로운 추구/315..... 김한글
3. 중편아동소설창작에서의 새로운 계기/322..... 김선과
4. 아동소설 《딸라배》가 성공한 비결/328..... 김성문
5. 김영소설연구/333..... 전성호
6. 동화소설집 《짐승들이 세운 기념비》에 대하여/351..... 전복록
7. 전춘식아동소설에 대한 연구/359..... 김한글
8. 동심의 심층발굴과 아동소설문제에서의 탐구/383..... 전성호
9. 시대적각성, 새로운 추구/404..... 김한글
10. 아동장편소설 《엄마찾는 아이》의 슈제트구성에 대하여/413..... 김한글
11. 아동시가의 《때벗이》를 위한 노력적탐구/428... 김선과
12. 동시혁신의 앞장에 서있는 한석윤의 예술적탐구와 노력/441..... 김선과
13. 한석윤동시의 이미지리분석/457..... 전성호

14. 김철호현대동시에 대한 연구/466..... 김성문
15. 김철호동시집 《꽃씨의 이야기》 소감/479..... 전성호
16. 동시표현수법의 개발과 그 실험/491..... 김한글
17. 자연과 꿈의 서정/506..... 전성호
18. 홍용암과 그의 소년소녀시/518..... 김만석

중국조선족
아동문학작가론

채택룡아동문학활동과 그 문학사적의의

김만석

채택룡은 일생동안 아동문학을 하였고 또 훌륭한 작품을 쓰면서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역사적원인과 아동문학을 하는 우리들의 불찰로 하여 생전에 그이에 대한 마땅한 평가를 내려주지 못하였다.

본고는 채택룡의 아동문학활동과 그 문학사적의의를 밝혀 우리 중국조선족아동문학에서의 채택룡의 공헌을 기리고 그 위치를 정립시키려 한다.

프로아동문학의 기치를 들고나온
채택룡

채택룡이 14세때에 동요 《어린 동생》을 써가지고 《별나라》에 발표했던 1920년대의 한반도 아동문학문단은 대체로 세계 류파로 나뉘어있었다.

박영종을 선두로 한 《천사주의》 아동문학은 세상이 암흑하고 생활이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에게 슬픔과 비애를 안겨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그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그들은 현실도피를 시도하면서 이른바 《순수아동문학》을 지향하였다.¹⁾

방정환을 선두로 한 《애상주의》 아동문학은 《천사주의》 아동문학과는 달리 험벗고 굶주리는 아동들속에 들어가 동심을 발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불고하는 문학을 지향하여 그 정서가 말 그대로 애상적이였다.²⁾

박세영 등을 선두로 한 《프로아동문학》은 문학의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무산아동들의 고통스러운 생활과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환경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고취하는 현실참여문학을 주장하였다.³⁾

1913년 음력 2월 6일 조선 함경북도 회령군 한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난 채택룡은 여덟살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어릴 때 처음에는 《신소년》을 보다가 1926년부터는 《별나라》 잡지를 읽으면서 프로아동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7년에 쓴 동요 《어린 동생》을 1928년 신춘호 《별나라》에 발표하였고 그해 《별나라》에 또 동요 《개미》를 발표하였다. 동요 《개미》는 그의 초기창작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백양나무 우거진 울타리밑에
오손도손 잘사는 개미들 마을

오늘도 쉬지 않고 량식 모은다
하나 둘 때를 지어 량식 모은다

장다리발 꿀돼지 놀고먹는 놈
개미집 뛰어들어 쌀을 빼앗다
모여든 개미들에게 물어뜯기어
똥똥배가 터져서 죽어버렸네

작자는 이 동요에서 근로인민을 부지런한 개미로 의인화하고 지주, 자본가, 침략자를 장다리발 꿀돼지로 상징하였다. 그리고서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개미네 마을에 뛰어들어 꿀돼지를 증오의 필치로써 《놀고먹는 꿀돼지》가 《쌀 빼앗으러 달려드는》 흉상을 생동하게 그려냈다. 그다음 뭉친 개미들에 의하여 똥똥배가 터져죽는 꿀돼지들의 끝장을 통쾌하게 노래했다. 이것은 동화적무대에서 벌어진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은 당시 사회현상에 대한 상징적인 반영이 아닐수가 없다.

15세의 나 어린 채택룡은 자기 가정의 생활처지로부터 출발하고 또 프로작가들의 영향을 받아들여 불합리한 당시 사회를 투시해보고 이런 동요를 써냈다. 여기서 우리는 채택룡의 계급적립장을 보아낼수 있으며 작자가 추구한 프로문학경향을 가려 잡아볼수가 있다.

채택룡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회령 송평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아동계몽사업을 하면서 형식이 간결하고 평이한 동요창작에 정진하였다. 그 대표작은 1930년에 쓴 동요 《아가 아가》이다.

아가아가 어서 자라
그리해야 새봄 맞고
글 배우러 야학가지

아가아가 어서 자라
글 배워야 속지 않고
세상 위한 일꾼되지

여기서 우리는 일제노화교육을 반대하여 마을마다 꾸린 야학교로 아이들을 부르고 세상에 속지 않는 일꾼이 되자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만히 타이르는 작자를 만날수가 있다. 당시 채택률은 이런 시들을 썼다고 하여 1주일간 면사무소에 간첩 옥본적도 있었다.

1931년 여름방학, 그는 문학리론수준을 더 높이고 창작기량을 닦기 위하여 일본 동경에 건너가 일본대학 예술과에 적을 붙이고 고학하였다. 그러나 생활난에 부대껴 학자(學資)를 이어낼수 없어 1932년에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를 도와 농사하는 한편 《신문화》에 동시 《사랑하는 누나여》를 발표하였다.

사랑하는 누나여
들으시라, 나의 웨침을
아시는가, 내 성품이의 뜻을

내 사랑하는 누나여
왜 대답이 없는가, 묵묵하고 썼는가
때아닌 잠만 자고있는가

사랑하는 누나여
오랜 잠꿈을 깨고
뒤숭숭한 뺨을 내다보시라

사랑하는 누나여
뒤떨어진 누나들과 함께 새길을 찾아
주저 말고 정의의 땀터로 뛰어나서라

내 사랑하는 누나여
 헛된 꿈 깨뜨리고 의로운 길에 나서라
 부질없는 두려움 박차버리고
 옳은 길에 몸과 피 아끼지 마시라

이 동시는 채택룡이 일본에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쓴 첫 작품이다. 그러다보니 채택룡의 지식수준은 높아졌고 시야는 넓어졌으며 사회를 투시해보는 심도 또한 깊어졌다. 그 결과 시에서의 서정적주인공은 새로운 시대적높이에 올라서서 아직 각성하지 못한 누나로 하여 안타까이 가슴을 뜯으며 부르짖게 된 것이다.

하여 《때아닌 잠만 자는 누나》, 《묵묵히 대답없는 누나》를 잡아흔들면서 《어서 깨어나라》고 부르짖는 서정적주인공이 누나더러 《깨어나서 뒤숭숭한 박을 내다보고》, 《뒤떨어진 누나들과 함께/ 새길을 찾아 주저 말고 정의의 싸움터로 나서달라》고 웨친다.

이처럼 서정적주인공은 누나앞에 땃땃이 나서서 현실을 정시하고 누나더러 의로운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두려움 박차고 옳은 길로 의로운 싸움에서 몸과 피 바칠것》을 바라면서 누나를 투쟁으로 떠밀고있다.

작자는 민족적,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자기의 작품에서 일제침략자를 반대할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담히 호소함으로써 자기의 프로아동문학의 경향을 숨김없이 표현하였다.

하여 상징적인 동화세계에서 노래하던 채택룡은 현실속에 우뚝 일떠선 전투적시인으로 우리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채택룡은 그같이 암흑한 일제통치하에서 창작초기부터 프로아동문학경향으로 나아가면서 프로아동문학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우리의 제1대아동문학작가이다.

중국조선족아동문학초창기의 개척자 채택룡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은 1927년 채택룡의 동요 《어린 동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현대아동문학(창작아동문학)은 1835년에 안데르센이 《아동을 위한 이야기묶음》을 출판한것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고 중국현대아동문학은 1919년 《5·4》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한국현대아동문학은 1923년 마해송의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발표한것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고 조선현대아동문학은 1925년 《카프》결성으로부터 시작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런데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작가군이 형성되고 작품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발표원지가 해결되었던것이다.

작가군을 형성한 작가들로 보면 최서해⁴⁾, 윤극영⁵⁾, 리호남⁶⁾, 천청송⁷⁾, 안수길⁸⁾, 윤동주⁹⁾ 그리고 채택룡, 김례삼, 함형수¹⁰⁾, 리규화, 럽호렬 등이었다.

이런 작가들은 한반도에 있을 때 쓴 작품과 간도땅에 와서 쓴 작품들로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을 구축할수 있는 작품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 연길교구장(教区长) 백화동이 통정에서 《카톨릭소년지》를 출간함으로써 중국조선족아동문학은 자기의 발표원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중국조선족아동문학초창기에 채택룡은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장르개척자로 나섰다.

한반도에 창작동요는 1920년대초기에 나타났는바 그 대표